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팡파르

27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피우다' 주제로 진행  
입체적으로 꾸민 화려한 국화작품·야간경관·불거리·체험·행사 '풍성'

올해로 21회를 맞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지난 18일 열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화축제는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축제 기간 이후에도 신흥공원과 미륵사지, 익산역 앞에서 11월 3일까지 분산 전시를 진행한다. 이날 개막식은 화려한 점등식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으며, NH농협 익산시지부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에는 가수 소찬휘, 싸이버, 김중욱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익산시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천막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우비를 준비했다.



올해 축제장에 설치된 국화작품은 기존의 나열방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방식으로 연출됐다.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빛나는 야간경관이 설치돼 축제에 화려함을 더했다. 또한 익산의 대표산업인 보석을 품은 대형선물상자 조형물,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치미와 용마루를 엮은 백제왕도문은 더욱 웅장한 자

태를 뽐냈다. 이번 축제는 국화와 정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정원, 유럽정원, 텃밭정원, 어린이정원 등이 조성됐고, 인근 신흥공원에는 국화, 코스모스, 핑크몰리 등 가을꽃이 만개해 방문객을 맞았다.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행

사도 더욱 풍성해졌다. 각양각색의 정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증 사진 장소가 설치됐고, 국화의 생육에 대해 알고 축제를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중앙체육공원과 분산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스탬프투어는 마름이 등 인형 친구들이 함께 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역 청년들이 준비한 '그레이트 익산 팡투어'는 유명 유튜브와 함께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 맛집을 탐험하며 익산을 알차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익산에서 마커패드 이벤트 △송리빛담길 야간경관 조성 △지역업체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한 서리를 맞고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국화 천만송이가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익산에 피어난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기대만큼 품격 높은 축제를 준비했으니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을의 정취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 응포면 녹차밭서 체험 행사 '성황'

'숲속문화제' 개최... 200여명 참여해 걷기·다도 체험 등 진행

익산시 응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북단 녹차밭에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익산산림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 '숲속 문화제'는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힘을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이 시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숲속 문화제는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 펼쳐진 녹차밭의 경관을 배경으로 걷기와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됐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녹차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데크길과 산책로를 걷고, 다도 체험으로 마음을 살피며 자연이 주는 안정감을 누렸다. 이어 녹차잎을 활용한 떡차 만들기과 디저트 만들기 등의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문패·책갈피·편백나무 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국산 목재 활성화와 자연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날 김정수 도의원과 조남석·이중선 시의원이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녹차밭이 위치한 함라산은 국립익산 치유의 숲을 비롯해 명품 임도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응포곰개나무, 용안생태습지공원, 익산공공수마장, 교도소세탁장 등 관광 자원이 인접해 더욱 풍성한 체험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의 소중한 산림자원인 최북단 녹차밭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함라산을 치유와 힘을 위한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 포럼 개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통합운영·새만금 지역 트라이포트 활성화 전략 방안 논의

군산시가 지난 18일 베스트웨스턴플러즈전주호텔에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을 주제로 정책 공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군산시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회, 관계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항만연구원 조용철 교수는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통합 운영'을 주제로 국내 무역항 운영 특성 분석과 해외 항만 통합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두 포트 운영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교수는 이어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도모 및 항만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국 후베이 항 통합 사례와 동일 권역 내 항만자원 통합을 고려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낸 일본의 항만계획 등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군산항과 인접한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새만금 지역 트라이포트 활성화'를 주제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 포럼'을 주제로 국내 무역항 운영 특성 분석과 해외 항만 통합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두 포트 운영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교수는 이어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도모 및 항만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국 후베이 항 통합 사례와 동일 권역 내 항만자원 통합을 고려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낸 일본의 항만계획 등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군산항과 인접한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당위성을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트라이포트 추진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적인 기반 시설 조성 △신성장 산업 확보 △재정적 지원 △일괄 통관 체계 등의 트라이포트 민간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좌장인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를 비롯해 남형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송민근 전주대학교 교수, 이경환 한남대학교 교수, 평택대학교 정수현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는 조용철 교수와 박두진 교수의 발제와 '군산항 도약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로 군산항과 신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새만금신항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만으로 앞으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통합 운영된다면 효율적인 항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산·학·연 포럼 성료

군산형 해상풍력 산단 조성 위한 전략 수립·성장 방향 제시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단장 장민석)은 최근 사단법인 단체인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포럼과 함께 2024년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산·학·연 포럼을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포럼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육성 전략 수립 및 지속 성장 가능한 방향에 대한 논의 및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포럼을 열었으며, 이번 포럼에는 COP KOREA, SK E&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약 17여 곳의 기업체와 전북신화융합원, 한국환경연구원, 호원대학교 군산대학교 LINC 3.0사업단 등의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포함해 약 88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군산지역 해상풍력 산단 조성 위한 2건의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발표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공급망 현황과 발전 방안 △해상풍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지역 재생의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 군산지역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산·학·연 간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국립군산대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장 장민석(산학협력담당)은 열띤 토론을 마친 후 행사 소감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군산형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 동향과 유관 부처 기술훈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제도 및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 본 포럼이 해상풍력 산업의 큰 도약이 되길 바라며, RIS에너지신산업 사업을 통한 기술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익산시, 2024년 반려동물 문화축제 26~27일 개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익산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26~27일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4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제 18회 익산FC 국제 도그쇼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한다. 특히 제18회 전통의 '익산 FC 국제 도그쇼'와 함께 진행되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6일 오전 11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정책 홍보 등이 진행된다. 체험으로 달리기 대회, 아마추어 장애물 경주, 장기자랑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비롯해 애견미용, 방한제 만들기, 반려견 모양 달고나 등을 운영한다. 또한 도그 스포츠 훈련 시범, 펫티켓 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과 건강검진,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 등을 진행해 반려동물 정책 홍보에도 힘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사회관계망 홍보물 자체 제작 동영상 화제만발

지난 18일 군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화제다. 최근 젊은 세대의 유행을 적극 반영해 만든 관광 홍보용 짧은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다. 실제로 시는 교양이를 소재로 한 관광 홍보용 짧은 영상(숏폼)을 사회관계망(개인채널)에 선보인 뒤 조회 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독감 예방 주사 독려 홍보에 '뽕뽕', '미룬이' 춤 등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재치있게 접목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는 시장 정보와 관광·맛집·지역 특산품을 SNS·QR부호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